

전북대 외국인 유학생 5000명 유치 전략 ‘탄력’

열정·책임감으로 교육봉사 성황

중국·인도네시아 현지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추진 중인 외국인 유학생 5천 명 유치 전략에 힘이 실리고 있다. 21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여름방학 동안 국제화역량활동단 학생들이 중국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교육 봉사와 문화 교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국제화역량활동단은 중국 서안과 남경 지역의 푸양 신화외국어학교, 섬서재경직업기술대학, 함양직업기술학원, 섬서에너지직업기술학교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반둥의 SMK Mahaputra 고등학교, Pasundan 2 고등학교, IWU대학교, UNPAS대학교 등에서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한국요리, 한국어 교육 등 K-컬처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현지 학생·학부모와의 질의 응답과 대학 입학 설명회 및 성과 발표회를 통해 전북대학교의 교육 역량과 발전 비전을 알렸다. 특히 인도네시아 IWU(International Women University)와는 정기적 학술·문화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편 전북대는 매년 이어지고 있는 국제화역량활동단의 활동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유학생 5천 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남원에 들어서는 남원글로벌 캠퍼스 추진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북대는 이곳에 글로벌커머스학과·K-엔터테인먼트학과·한국어학과 등 외국인 전용 학부를 설치해 1,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학생들이 낯선 환



전북대학교 국제화역량활동단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중국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교육 봉사와 문화 교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경에서도 책임감과 열정으로 교육 봉사와 문화교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북대가 지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고, 외국인 유학생 5천 명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연구인력혁신센터는 지난 14~16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메가어스 엑스포(MEGA US EXPO)’에 참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중기 해외시장 개척 지원

전북대 연구인력혁신센터

‘메가어스 엑스포 2025’ 참가

21만 달러 규모 수출 협약

사이공이노베이션허브와 맞손

전북대학교 연구인력혁신센터(센터장 국경수)는 지난 14~16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메가어스 엑스포(MEGA US EXPO)’에 참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베트남 호치민과학기술부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대를 비롯한 전국 10개 대학과 16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주관했다. 행사에는 1만여 명의 현지 바이어와 관람객이 방문, 국내 유망 중소기업 제품을 알리고 수출 판로를 모색했다. /장은성 기자

2학기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내일부터

전북교육청, 12월 22일까지… 학교와 연계

도내 일반계고 학생 참여… 59개 강좌 개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2학기 학교 연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는 일반계고와 전북외고 학생이 참여한다. 교육 과정은 다양한 학생 수요를 반영해 △사회 탐구 방법 △융합과학 연구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초 △조형 탐구 등 29개 학교에서 온·오프라인 59개 강좌를 개설, 총 697명이 수강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통합과학 학생 참여형 수업설계 역량 키운다

전북교육청, 내일 과학교사 60명 대상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 이비스스타일 엠베서더 전주시티센터에서 중·고교 과학교사 60명을 대상으로 통합과학 교수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중·고등학교 과학교사의 통합과학 교과 수업 지도 및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과학 교과 영역 간 통합적 접근 방법과 실험·탐구 활동 지도 역량을 키우고, 학생 중심의 참여형 수업 설계 및 과정 중심 평가 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연수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영역별로 4개 분반을 구성해 각 분반당 15명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2022 개정 고등학교 통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금길

‘우리 아이 덕질, 성적 UP’

토콘서트 30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홀에서 ‘우리 아이 덕질, 성적 UP’ 토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콘서트는 ‘공부가 선행이 되는 순간’의 저자 조승우 작가와 21년차 교사이자 전북교총 회장 오준영이 함께 무대에 올라 학부모에게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형성과 관련한 실제적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덕질을 몰입·성장으로 연결하는 실천 전략 △30일 루틴으로 만드는 자기주도 학습 △부모의 말습관과 개입 방법 △상·중·하위권 맞춤 루틴 사례 공유 등이다. 오준영 회장은 “공부는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하고 싶어지도록 돕는 과정”이라며 “이번 강연이 학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자에게는 기념품도 제공된다. /장은성 기자



비전대, 호남·제주권 3개 대학 런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18~20일 3일간 2025년 호남·제주권 3개 대학 런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비전대와 조선이공대, 제주관광대 학생 및 교직원 40여 명이 참여,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융복합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3개 대학이 공동으로 기획한 공유·협업형 교육 과정이다. 이에 따르면 ‘런케이션(Leamcation)’은 배움(Learning)과 휴가·여행(Vacation)을 결합한 교육 여행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학습과 휴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드론 조종법과 영상 편집 기술을 배우고, 전주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등 지역 명소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제작했다. 특히 교수진과 보조강사가 팀별 지도를 맡아 전주비전대학교 교내 및 전주시 주요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제작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완성작을 발표하는 콘테스트를 통해 학습 성과를 공유했다. /장은성 기자



9월 1일자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이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신규교사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학생들의 성장 위해 열정 쏟을 수 있길”

전북교육청, 9월 1일자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 총 22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2층 강당에서 9월 1일자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날 신

고입지원시스템 사용자 교육으로 고입 전형 지원 강화

전북교육청, 중·고교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진행

학생·학부모에게 정확한 진학 서비스 제공키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중학교 3학년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고입지원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는 26~27일에는 전주교육지원청 전산교육실에서 고입업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 구축된 고등학교 입학전형 포털을 전면 개편, 지난 5일 새로운 고입지원시스템을 개통했다. 이 시스템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내신성적 산출 및 입학원서 작성·제출을 온라인으로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입학전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업무 기능을 통합하고, 원서 작성·제출, 데이터 기반 전형 현황 시각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교사들이 고입지원시스템의

전달하며, 전북교육가족이 된 것을 축하했다. 유 권한대행은 “쉽없는 노력과 인내의 결실을 맺게 된 여러분들을 축하한다”며 “교육청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할 테니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열정을 쏟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새로운 기능을 숙지해 학생·학부모에게 안정적이고 정확한 진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개통한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시스템 업무 메뉴별로 동영상 제작·탑재해 사용법을 손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교육은 고입지원시스템을 능숙하게 활용해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와 고입전형이 가능하도록 돕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2월 5일까지 디지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북교육청, 15개 기관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월 5일까지 찾아가는 디지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속에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생활 속 필수 디지털 기술 습득이 어려운 성인 문해 학습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

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디지털문해교육은 도내 하력인정 문해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15개 기관, 24개 학급 272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에 각 기관이 요청한 날짜와 장소로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도 함께 지원한다. /장은성 기자